



세상을 바꾸는 금융

1999년 국민은행 업계 최초 인터넷뱅킹서비스 실시



■ 국민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국내은행중 처음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8일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송금, 조회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국민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은행간 거래와 조회업무를 시작한 후 점차 무역결제,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등 국제거래업무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인터넷뱅킹 서비스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인 아닌 일반 시내요금에 적용된다.

2016년 업계 최초 올인원카드 KB국민 알파원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여러 장의 KB국민카드를 한 장의 카드에 담아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KB국민 알파원카드'를 2일 출시한다.

이 카드의 상품명인 '알파원'은 핀테크 기술이 집약된 최고와 최초의 카드라는 뜻의 알파와 모든 카드와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에 담은 올인원(All in One) 카드라는 뜻의 (One),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카드 상품마다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카드를 모두 소지해야 했으나 이 카드를 이용하면 단 한장의 카드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카드는 별도 발급비가 없어 편리성을 높였다. 이 카드 한 장으로 여러 장의 카드에 넣고 다니지 원하는 혜택을 제공해 사용할 수 있다. KB국민 알파원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인 'KB국민 알파원카드'를 이용하면, 설정된 카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핀테크 기술의 융합으로 앱카드와 실물카드를 실시간으로 맵핑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용할 카드를 수시로 변경해 원하는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다. 마트에서 마트 할인 카드를 '알파원 결제 카드'로 설정하면 마트 할인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주유소에서는 주유 할인 카드를 '알파원 결제 카드'로 설정하면 주유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국민 알파원카드'와 '국민 알파원카드'를 하나로...

2003년 세계 최초 모바일뱅킹서비스 Bank ON 실시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조회와 이체, 출금, 수표조회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본격 등장했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 칩을 이용한 첨단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뱅크 온(Bank On)'을 선보였다. 다음은 1일부터 본격 서비스되는 뱅크 온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담은 금융 전용 칩을 전용 휴대폰에 내장, 계좌조회와 이체, 현금출금, 수표조회 등의 기본서비스는 물론 교통카드 기능까지 제공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라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이번 뱅크 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력단계는 3~4회로, 소요시간은 1분내로 대폭 단축되며 통신료도 기존의 10~15% 수준인 건당 10~30원에 불과하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앞으로 한두달 내에 신용카드 지불 기능을 추가하고 로또복권 구매와 당첨확인 서비스, 광고금 납입, 주택 청약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영역을 대폭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뱅크 온 서비스는 금융과 통신이 접목돼 휴대폰 하나로 기존 통신서비스는 물론 개인 금융생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시대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민은행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최초 금융통신융합 이동통신 서비스 Liiv M 출시



KB국민은행(허인 은행장)이 10일 중대형 예정인 가상이동통신망(MVNO) 서비스 브랜드명을 '리브'로 확정했다. 앞서 NO기반 가상이동통신망(MVNO)을 선보인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 M은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전략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패밀리로 브랜드인 리브(Liiv)를 활용하고 직관적인 모바일(Mobile)을 접합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업계 최초 보이는 ARS 서비스 실시



KB손해보험, 손보업계 최초 '보이는 ARS' 서비스 실시

■ KB손해보험은 16일부터 자동응답서비스(ARS)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보이는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16일부터 자동응답 중 고객과 상담사 간의 실시간 자료 서비스(ARS)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보이는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기존 ARS와 달리 상담사와 고객 간의 실시간 자료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고객의 질문에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즉시 전송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기존 ARS와 달리 상담사와 고객 간의 실시간 자료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고객의 질문에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즉시 전송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세상의 새로운 페이지 KB금융그룹이 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